

2028 대입 시행안 토대, 중3 고교 선택전략

**지 상 범**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이 상위권 대학별로 발표되며 베일을 벗었다. 이번 계획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내신 5등급제 전환', 성적표 상 '표준편차 삭제', '수능 선택과목 폐지'라는 전례 없는 격변 속에서 대학들이 실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보여 주는 최초의 구체적인 설계도다. 과거의 고교 선택이 단순히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나 '정시 특화 고교'라는 이분법에 지배당했다면 이제는 달라졌다.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내신+세특+수능+대학별고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 체제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선발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현 중3을 위한 고교 선택의 나침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시 교과 전형의 본질적 변모와 '숫자 1.00' 프리패스의 종말이다.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상위 10%까지 동일한 1등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은 교과 전형임에도 서류(세특 및 이수 과목) 정성평가를 15~30% 필수 결합하

거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에 따른 감정 장치를 장착했다. 5개 학기 누적 올 1등급 규모는 전국 2100명 안팎으로 고도로 압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은 단순 내신 완화를 정성평가와 결합해 '진짜 최상위권'을 걸러내는 스크리닝 장치로 역이용하고 있다.

둘째, 정시 모집 내 '교과 역량 평가'의 연쇄적 확대다. 수능이 공통과목 위주로 단순화돼 동점자 변별이 까다로워지자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정시에서 '교과 이수 내용 및 성취도 정성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고교 3년간 전공 관련 심화과목을 회피한 채 교과생활을 방치하던 도피성 정시 올인 전략이나 무작정 검정고시로 돌아서는 자퇴 전략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표준편차 삭제'가 가져온 원점수 중심의 평가다. 성적표에서 고교 간 격차를 판별하던 표준편차가 삭제되면서 대학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연계 분석한다.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등급 뒤에 숨겨진 '과목별 원점수'의 절대적 값이다. 과목 평균이 낮은 까다로운 시험에서 얻은 원점수 98점과 내신 부풀리기로 평균이 높은 시험의 95점은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알리미'를 통해 지망 고교의 학생

수, 평균 점수, 성취도별 비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실제 학업 분위기를 판별해야 한다.

실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육과정의 깊이가 있는 특목·자사고 합격 쏠림 경향이 강하다. 2028 대입 체제에서는 이러한 선별 기조가 서성이한 라인까지 도미노처럼 확산될 예고다. 이에 따른 중3의 후기 고교 선택 전략은 명료하다. 우선 학생이 진학하려는 전공 연계 필수 이수 과목이 제대로 개설되는지 확인하되, 과목별 실제 수강 인원이 무더기 붕괴해 내신 확보가 어려워지는 고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류의 학업적 깊이를 검증하는 '제시문 기반 심층 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론·탐구 중심의 고교를 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수능 국어'로 대변되는 강력한 수능 체력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역량이 결부돼야 한다.

수학·과학 심화 선행이 탄탄하고 주도적 탐구를 즐기는 학종 최적화 유형(A형)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도 모의고사 고득점을 뽑아내는 전천후 유형(B형)은 전국단위 자사고나 교육특구 명문고가 유리하다. 성실한 자필 관리에 강해 안정적인 내신 선점 후 수능 최저 충족을 목표로 하는 유형(C형)은 교육과정이 탄탄한 지역 거점 일반고가 최적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청년미래적금’의 사각지대

**기지 수첩**안 승 진
(금융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가입 신청을 접수한 청년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23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대상인 만 19~34세 청년 인구가 약 10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명 중 2명이 가입을 신청한 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최대 6~12%(우대형 기준)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기관별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연 19.4%의 적금에 3년간 가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저축한 만큼 지원하는 구

조다. 12%의 적금금을 제공하는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6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대형 가입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1만2000원을 받는 데 그친다. 매달 많은 금액을 내면 이득도 크다.

낸 만큼 받는 방식은 공평하지만, 충분한 자금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는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자영업 등을 이유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가족부양이나 주거비 등을 이유로 생활비 지출이 많은 청년은 많은 납입금을 내기 어렵다. 첫 일자리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청년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모든 청년이 최대 납입액을 매달 낼 수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정책 사각지대도 분명하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요건으로 지난해 소득 증빙을 요구한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예술인, 근로계약서를 누락

하는 경우가 잦은 일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 불안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각종 우대금리 혜택도 사라진다. 상품을 유지해도 납입하지 못한 만큼 손해가 누적된다. 20대 취업자의 20%가 근속기간 한 달 미만의 임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들은 가입을 유지하기보다 해지 후 미래의 재가입을 고려하기 쉬운 구조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7일부터 1차 가입 신청자의 계좌 개설을 시작한다. 사업이 막 시작된 만큼, 제도를 개선할 여력도 충분하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고려한다면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적금담보대출'이나 중도해지요건 완화, 고용불안 청년을 위한 추후 납입 일부 허용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6일 (음 6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9년생 타인이 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60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72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4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49년생 이래 저래 변화가 있게 될것입니다. 61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73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85년생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50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62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74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86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63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합니다. 75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87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52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64년생 연인과 다툼이나 이별수가 있겠습니다. 76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88년생 변함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날 것입니다.



53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65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7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89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54년생 원통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6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8년생 순탄하게는 사업이 흘러갈 것입니다. 90년생 큰 재물을 얻을것입니다.



55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67년생 재질을 잃거나 해를 당하게 됩니다. 7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91년생 조심하면 서 생활해야 합니다.



56년생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8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80년생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92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7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습니다. 69년생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환합니다. 81년생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93년생 여행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8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70년생 가까이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82년생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94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59년생 귀하의 사업이 처차 진전이 있습니다. 71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은 운입니다. 83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95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김상회의四季

헌법은 삶의 보루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법 위에는 법이 있다. '법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법은 헌법이다. 한 나라의 모든 법률, 명령, 조례는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만약 국회에서 만든 어떤 법이 헌법이 보장한 가치에 어긋난다면, 그 법은 효력을 잃고 사라진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고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을 그 바탕으로 삼았다. 헌법이라고 하면 법학자들이나 정치인들만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헌법이 얼마나 내 생활과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헌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 국회가 해야 하는 일, 권력의 집중을 막아 독재를 예방하는 견제 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자유와 권리는 대부분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어서 가능하다. 예전 왕조시대에는 왕을 욕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었다. 현대에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다.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그렇다. 또 국가가 힘으로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도 없다. 헌법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민의 권리는 흔들리고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서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2	9	8	7	6	2	9
8	9	9	6	7	1	2	2	8
9	7	6	2	8	9	2	1	8
6	2	9	8	2	8	7	9	1
1	8	7	8	6	2	9	9	2
2	6	1	9	2	9	8	8	7
9	8	2	7	9	2	1	8	6
7	9	8	2	1	8	9	6	2
2	2	8	1	9	6	8	7	9